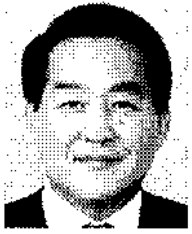


【 2016.06.16(목) 강원일보 】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16일 오전 11시 춘천시 동면 도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회를 열고 협회 및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

【 2016.06.16(목) 강원도민일보 】

‘중심제’ 지역건설업체 숨통

<종합심사낙찰제>

춘천시청사 건립 첫 적용... 도내 2곳 공사 참여

강원도내 첫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가 적용된 춘천시청사 건립공사 시행사가 인천 동우개발(대표 박영광)로 결정된 가운데 도내 업체 2곳이 40%의 지분율을 갖고 공사에 참여하게 됐다.

춘천시가 입찰공고를 내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 나선 결과로 중심제가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지 주목된다.

15일 강원조달청과 도 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실시된 춘천시청사 건립공사 개찰 결과, 31개 참가업체 중 서울청광종합건설이 1순위에 올랐다.

과거 최저가낙찰제로 적용됐다면 청광종합건설이 사실상 주 시행사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달청은 종합심사를 거쳐 최근 주 시행사를 동우개발로 변경했다.

중심제 기준안인 △공사수행능력 50점 △입찰금액 50점 △사회적 책임가점(1점) △계약신뢰도(감점)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면서 주 시행사가 변경됐다.

입찰 공고시 추정 가격이 549억원이었지만 투찰률 80.5%로 최종 공사비가 354억3546만원으로 바뀌

었다. 또 도내에서 원주 동천건설(대표 임정인)과 평창 대암건설(대표 최영호)이 각각 30%와 10%의 지분율로 공사에 참여하게 됐다.

중심제 적용에 따라 도내 업체들이 사실상 150억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은 셈이다.

이번 공사에 도내 업체들이 참여하는데는 춘천시의 역할이 컸다.

춘천시가 시청사 건립공사 입찰 공고에 지역 업체들이 40%의 지분율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입찰 공고시 지역 배분율이 명문화되지 않아 10-20% 지분을 획득한 것과 비교하면 춘천시가 지역 업체에 큰 배려를 했다”며 “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들도 공사를 발주할 때 지역업체 지분율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도건설협회장 임기 4년 단임제 전환

본회 정관 변경 따라

대한건설협회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도건설협회장 임기도 3년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됐다.

도 건설협회는 16일 오전 11시 도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최근 바뀐 ‘협회 정관 일부 변경안’을 보고한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협회장과 시도회장 대한 회원사의 참여 기회를 확



대하고 선거과열로 인한 협회 이미지 추락을 막기 위해 본회 정관을 올초 변경, 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본회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도회장 임기도 본회장 임기와 맞추기 위해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정관 개정으로 오인철(사진) 현 회장은 임기 4년의 첫 도회장이 됐다.

안은복 rio@kado.net

동우개발, 춘천시청사 중심제 수주 유력

동우개발(대표 박영광)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방식의 춘천시청사(조감도) 건립공사 수주에 한 발짝 다가섰다.

15일 조달청은 강원 춘천시(공영개발사업소) 수요로 최근 개찰을 집행한 이 공사에 대한 종합심사를 완료하고 동우개발을 낙찰예정자로 선정, 통보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이번 입찰에는 모두 31개 건설사가 참가한 가운데 저가순 10번째 투찰한 동우개발이 입찰금액 및 수행능

력 등 종합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올렸다.

동우개발의 낙찰금액(예정)은 354억 3546만9000원으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예정)은 80.504%를 기록했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확인서류를 받아 어상이 없을 경우 동우개발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 착공체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공사는 애초 종합평가낙찰제 대상이었으나 제도 시행 유예기간 중 중심제로



발주돼 지역의무공동도급(40% 이상)이 적용됐고, 동천건설(30%)과 대암건설(10%)이 지역사로 참여해 수주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봉승권기자 skbond@

건협 강원도회,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사진)는 16일 도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MOU) 체결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보고하고 대표회원 보궐 선출 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건설업, 경제 비중 점점 '뒷걸음'

4년 전보다 0.4%p 떨어진 5.5%
부가가치 창출 지수는 소폭 상승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4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산출액 기준 건설업의 비중은 5.5%로 4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건설업 비중은 2000년 7.2%를 기록한 이후 2005년 7.6%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0년 들어 5%대로 떨어졌다.

아울러 총 고정자본형성(민간 및 정

부) 구성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다. 2010년 47.3%를 기록한 건설투자 비중은 2014년 46.2%로 떨어졌다.

이에 비해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소폭 상승했다. 부가가치율이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뉜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2014년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34.5%로 2010년 대비 2.1%포인트 올랐다.

건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오름세를 보였다. 2010년 0.717에서 2014년 0.733으로 0.016포인트 높아졌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가 1000원 발생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국내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733원으로 많아졌다는 의미다. 부동산 및 임대업의 부가가치율도 같은 기간 76.5%에서 78.4%로 1.9%포인트 올랐다.

최남영기자 hinews@